

‘-으면’과 ‘-다면’의 연구 방법에 대한 제언

김문기* · 김형복**

1. 머리말
2. 국어사전에서의 뜻풀이 검토
3. ‘-으면’과 ‘다면’ 연구 방법에 대한 제언
 - 1) 선·후행절 사건의 의미적 관련성
 - 2) 시제 실현 양상과의 관련성
 - 3) 접속 부사와의 교체 가능성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적 조건’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으면’과, ‘가정’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면’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 국어사전에서 이들에 대한 뜻풀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몇몇 앞선 연구들에서 ‘-으면’과 ‘-다면’을 어떻게 구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으면’은 ‘조건’의 의미를, ‘-다면’은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 기능을 구분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으면’과 ‘-다면’의 의미 기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핵심적인 것은 선·후행절과 관련된 ‘상황’과 ‘화자의 인식’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으면’과 ‘-다면’의 자연스러운 쓰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선·후행절에서의 시제 실현 양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들 연결 어미와 대응되

* 제 1 저자,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강사 (kimmg5058@hanmail.net)

**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조교수 (kim5215@inje.ac.kr)

는 접속 부사를 ‘그러면’과 ‘그렇다면’으로 상정하여 이들의 교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주요어: -으면, -다면, 조건, 가정, 상황

1. 머리말

한국어 문법 ‘-으면’과 ‘-다면’은 연결 어미로서,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가정’ 등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교체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선행절을 제시하고, 빈칸에 실현될 수 있는 후행절을 생각해 보자.

- (1) ㄱ. 봄이 오면, _____.
 ㄴ. 봄이 온다면, _____.

(1ㄱ)에서는 ‘꽃이 핀다, 날씨가 따뜻해진다, 결혼할 거야’ 등과 같은 후행절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1ㄴ)에 실현되면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1ㄴ)의 후행절로는 ‘여행을 떠날 거야, 내 삶도 나아지겠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등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으면’과 ‘-다면’이 실현될 경우, 선·후행절의 의미적 관련성에 대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이는 한국어 화자들이 ‘-으면’과 ‘-다면’에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의 질문과 답변에서도,¹⁾ 사전의

1) ‘온라인가나다’(<https://www.korean.go.kr>)에서는 국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온라인가나다의 답변은 국립국어원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게시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의미만으로는 ‘-으면’과 ‘-다면’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함을 알 수 있다.

(2) ‘-다면’과 ‘-으면’ 차이(2010. 2. 17. 등록)

- ㄱ. 질문: “만약 그들이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에게 말해 바로잡았다면, 오늘날까지 학교 폭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위 문장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만약 그들이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에게 말해 바로잡았으면, 학교 폭력은 진작 사라졌을 것이다.” 고친 문장의 ‘바로잡았으면’이 적절한지요? 아니면 ‘바로잡았다면’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요?
- ㄴ. 답변: ‘-다면’이나 ‘-으면’은 둘 다 어떤 사실을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제시하신 문장에 어느 것이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면’은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으면’은 주로 ‘-었-’ 뒤에 붙어,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애석해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쓰임새를 참고하여 표현의 본뜻에 더 맞는 어미를 골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2ㄱ)에서처럼 ‘-다면’과 ‘-으면’의 의미 기능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확한 표현의 선택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그런데 (2ㄴ)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뜻풀이에만 기대고 있어서, (2ㄱ)에 대해 답변으로는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외의 ‘-다면’과 ‘-으면’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특정한 이론적 근거에 기인하여 주로 유형 분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으면’과 ‘-다면’ 각각의 의미 기능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으면’과 ‘-다면’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실현된 표현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에 나타나는 연결 어미 ‘-으면’과 ‘-다면’을, 선·후행절의 의미적 관련성, 선·후행절의 시제 실현 양상과의 관련

2)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성, 연결 어미와 접속 부사의 교체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다루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문장과 그에 반영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덧붙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으면’과 ‘-다면’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밝혀 둔다.

이를 위해 『표준』,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 등에서의 뜻풀이 양상을 중심으로, 몇몇 앞선 연구들의 내용과 예문 등을 참조하기로 한다.³⁾

2. 국어사전에서의 뜻풀이 검토

먼저 ‘-으면’의 뜻풀이를, ‘-면’의 뜻풀이와 함께 살펴보자.

〈표 1〉 ‘-으면’의 뜻풀이

『표준』	『연세』	『고려』
-으면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1」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으면 (어미) 1. 단순한 가정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2. 실현이 불확실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면 ㉠연 ①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었-’, ‘-겠-’의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3. 실현이 확실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3)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https://ilis.yonsei.ac.kr/dic/>),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이들 세 국어사전에 제시된 ‘-으면’과 ‘-다면’의 뜻풀이와 함께, 제시된 용례의 전형성이나 문법적 적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3」 (주로 '-었-' 뒤에 붙어)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애석해하는 뜻을 나타낸다.	9. [뒷말이 생략된 채 '-었으면'의 꼴로 종결 어미처럼 써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나 희망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8. ['-면 하다, -면 싶다, -면 좋겠다' 등의 꼴로 써서]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② 'ㄴ'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었-', '-겠-'의 뒤에 붙어, 주로 '하다', '좋다', '싫다'의 앞에 쓰여,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말.
「4」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단순한 근거 따위를 나타내거나 수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 조건을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5. 뒷절의 내용에 작용하는 근거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7.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6. 으레 그렇게 된다는 법칙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4. 실현이 불가능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처럼 '-으면'의 뜻풀이로 『연세』에서는 9개, 『표준』에서는 4개, 『고려』에서는 2개를 제시하였다. 결국 세 국어사전에서의 의미 기능이 서로 차이를 보였다.

〈표 2〉 '-면'의 뜻풀이⁴⁾

『표준』	『연세』	『고려』
-면 ¹⁰ 「어미」 [※ '-으면'과 동일]	-면 (어미) [※ '-으면'의 뜻풀이 9. 제외] 9. 뒷절의 내용을 말하는 데에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 (ㄴ)연 ③ 모음이나 'ㄴ'로 끝나는 용언,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전제가 됨을 나타내는 말.

4)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뜻풀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10.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이다'의 아래에 써서] 시간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11. 예를 들어 설명하는 말들과 어울려 뒷내용을 설명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일반적으로 '-으면'과 '-면'은 변이형태로 처리되므로, 『표준』에서는 그 뜻을 풀이를 동일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연세』와 『고려』에서는 달리 제시했다. 『연세』에서는 '-면'의 뜻풀이에서 '-으면'의 뜻풀이 중 하나를 빼고 3개를 더 추가했으며, 『고려』에서는 '-으면'에서의 뜻풀이에 하나를 더 추가하였다.⁵⁾

한편, 세 국어사전에 제시된 '-으면'과 '-면'의 기본 의미는 공통적으로 '가정적 조건'으로 삼고 있다.⁶⁾ 그리고 각 국어사전에서 제시한 주변 의미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으면'의 주변 의미⁷⁾

『표준』	『연세』	『고려』
• 확실하거나 미완(未完)의 사실	• 사건의 실현 불확실성	
• 명확한 사실을 조건으로 삼음	• 사건의 실현 확실성	
• 현실과 다른 가정(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 그렇지 못한 현실 한탄)	• 사건의 현실화 희망, 바람	• 사건의 현실화 희망, 바람

5)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뜻풀이 추출에 활용된 말뭉치 자료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점은 실제적인 표현에 기반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형태소와 변이형태의 이론적 바탕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의문을 남긴다.

6) 다만, 『표준』에서는 '조건'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기본 의미를 '가정적 조건'보다는 '가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정'과 '조건'의 의미 중 하나를 우선적 의미로 선택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 이탤릭체 부분은 '-으면'에는 없지만, '-면'의 뜻풀이에는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 후행절 사건 실현을 위한 근거	• 후행절 내용에 작용하는 근거나 조건 • 후행절 내용에 대한 근거	• 후행절에 대한 근거나 조건
• 후행절 사건 실현을 위한 반복적 상황에 대한 조건	• 습관적/반복적 조건	
	• (자연/인과 등) 법칙적 조건 • 사건의 실현 불가능성 • 시간적 조건 • 후행절에 대해 예시 관련 설명	

〈표 1~3〉을 종합해서 본 ‘-으면’의 의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세 국어사전에 제시된 ‘-으면’의 의미적 특성

구분		뜻풀이 내용	
기본 의미		가정적 조건	
주 변 의 미	사건의 확실성	불확실(조건절의 명제는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	
	사건 실현의 확실성	확실 또는 불확실	
	사건의 종결 양상	미완료	
	현실과 사건의 관계	현실화에 대한 희망	
	후행절 사건 실현과의 관계		후행절 사건 실현에 대한 근거/조건
			후행절 사건 실현을 위한 반복적 상황에 대한 조건
후행절 내용과의 관계		후행절 내용에 대한 근거	
		후행절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	

〈표 4〉에서처럼 ‘-으면’의 의미는 ‘사건의 확실성 여부, 사건 실현의 확실성 여부, 사건의 완결 여부, 선·후행절 사건의 실현에 대한 상호 관련성, 선·후행절 내용 사이의 관계 양상’ 등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면’의 뜻풀이에 대해 살펴보자. 이때 ‘-ㄴ다면’, ‘-는다면’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5〉 '-다면'의 뜻풀이

『표준』	『연세』	『고려』
-다면2 [I]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다면1 (어미) 1.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가정한 뜻을 나타낸다.	-다면2 (㉞연 형용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다면, ~-다'의 꼴로 써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보하여 그렇다고 짐을 나타낸다.	
[III]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다고 하면'이 줄어든 말.	-다면2 (줄어든꼴) 1. (줄어든 말로) -다고 하면.	-다면3 '-다고 하면'이 준 말. 형용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제삼자가 하리라고 예상되는 말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먼저 '-다면'은 연결 어미와, '-다고 하면'이 줄어든 말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표준』에서는 이를 다의어로 처리하고, 『연세』와 『고려』에서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였다.

연결 어미 '-다면'의 뜻풀이로 볼 때, 그 기본 의미는 '사실 가정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⁸⁾ 『연세』에는 이에 '양보하여 그렇다고 짐'의 의미가 더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다고 하면'이 준 말인 '-다면'은 『고려』에서만 제3자가 할 것이라 예상되는 말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뜻풀이

8) '가정적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의미 해석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사전의 뜻풀이가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것이므로 이것을 더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사실 가정의 조건'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를 제시하였다. 이는 큰 틀에서 보면 연결 어미인 ‘-다면’과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결 어미 ‘-다면’의 변이 형태라고 할 수 있는 ‘-ㄴ다면’을 살펴보자.

〈표 6〉 ‘-ㄴ다면’의 뜻풀이⁹⁾

『표준』	『연세』	『고려』
-ㄴ다면 [I] ‘-다면2’와 동일	-ㄴ다면 [I] ‘-다면1’의 1과 동일 ※ ‘-다면1’의 2에 해당하는 의미가 없음.	-ㄴ다면1 ㉠연 ① ‘-다면2’와 동일 ②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도입함을 나타내는 말.
[III] ‘-다면2’와 동일	[III] ‘-다면2’와 동일	-ㄴ다면2 ‘-다면3’과 동일

『표준』에서는 ‘-ㄴ다면’을 ‘-다면’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이에 비해 『연세』에서는 연결 어미 ‘-다면’과, ‘-다고 하면’이 줄어든 ‘-다면’을 동음이의어로 처리했다. 하지만 ‘-ㄴ다면’은 이들을 다의어로 처리하였다. 또한 ‘-ㄴ다면’의 뜻풀이를 보면, ‘-다면1’의 뜻풀이에서 ‘2’가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연결 어미 ‘-ㄴ다면’에 연결 어미 ‘-다면’에는 없는 뜻풀이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는다면’의 경우 『표준』에서는 ‘-ㄴ다면’과 동일하게 처리했지만, 『연세』와 『고려』에서는 역시 서로 달리 처리되어 있었다.

9)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차이를 나타내는 사항이다.

〈표 7〉 ‘-는다면’의 뜻풀이

『표준』	『연세』	『고려』
-는다면 [I] ‘-ㄴ다면’과 동일	-는다면1 1. ‘-다면1’의 1, ‘-ㄴ다면’과 동일 2. 예를 들어 설명하는 말들과 어울려 뒷 내용을 설명함을 나타낸다.	-는다면1 ㉠연 ‘-다면2’, ‘-ㄴ다면1①’과 동일
[III] ‘-ㄴ다면’과 동일	-는다면2 ‘-다면2’, ‘-ㄴ다면[III]’와 동일	-는다면2 ‘-는다고 하면’이 준 말. ‘-다면3’, ‘-ㄴ다면2’와 동일

‘-다면’, ‘-ㄴ다면’, ‘-는다면’의 뜻풀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국어사전의 ‘-다면’, ‘-ㄴ다면’, ‘-는다면’¹⁰⁾

구분	『표준』	『연세』	『고려』
-다면	[I]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II] ‘-다고 하면’이 줄어든 말.	다면1 1.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가정한 뜻을 나타냄. 2.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보하여 그렇다고 짐을 나타냄.	다면2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말.
		다면2 -다고 하면.	다면3 ‘-다고 하면’이 준 말. 제삼자가 하리라고 예상되는 말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음. ¹¹⁾
-ㄴ다면	‘-다면’과 동일	[I] ‘-다면1’과 동일 [III] ‘-다면2’와 동일	-ㄴ다면1 ① ‘-다면2’와 동일 ② 뒤 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도입함. ¹²⁾
			-ㄴ다면2 ‘-다면3’과 동일

10) 참고로, 이들 국어사전에 ‘-은다면’, ‘-았/었다면’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는다면	‘-다면’과 동일	-는다면1 1. ‘-다면1’, ‘-ㄴ다면1[II]’ 과 동일 2. 예를 들어 설명하는 말 들과 어울려 뒷 내용을 설 명함.	-는다면1 ‘-다면2’, ‘-ㄴ다면1①’과 동 일(‘-ㄴ다면2②’ 없음)
		-는다면2 ‘-다면2’, ‘-ㄴ다면[III]’와 동 일	-는다면2 ‘-다면3’, ‘-ㄴ다면2’와 동일

위에서 보듯이, 『표준』에서는 ‘-다면’, ‘-ㄴ다면’, ‘-는다면’을 변이형태로서 그 의미 기능을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이때 그 기본 의미는 ‘가정 조건’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세』에서는 ‘-다면’과 ‘-는다면’은 동음이의어로 처리했는데, ‘-ㄴ다면’만은 다의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의미의 측면에서는 ‘-다면1’과 ‘-ㄴ다면[II]’은 같았지만, ‘-는다면1’에 뜻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다. ‘-다면2’와 ‘-ㄴ다면[III]’, ‘-는다면2’는 모두 동일하게 처리했다. 이때 연결 어미로서의 기본 의미는 ‘가정’으로 삼고, 부차적 의미로 ‘비단정 양보’와 ‘뒤의 내용을 설명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다면’, ‘-ㄴ다면’, ‘-는다면’을 모두 동음이의어로 처리했다. 의미의 측면에서 연결 어미 ‘-다면2’와 ‘-는다면1’이 동일하며, ‘-ㄴ다면1’에 뜻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줄어든 말로서는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이때 이들의 기본 의미는 모두 ‘가정 조건’으로 제시하고, 부차적 의미로 ‘뒤 절의 내용 설명 위한 이야기 도입’을 제시하였다.

〈표 5~7〉을 바탕으로 한 ‘-다면’의 의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1) 이에 대해 “네가 가겠다면 우린 말리지 않겠다./그의 결정이 그렇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 등의 예문을 제시했다.
- 12) 이에 대한 예문으로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한국에 있지 않았다.”를 제시했다.

〈표 9〉 세 국어사전에 제시된 ‘-다면’의 의미적 특성

구분	뜻풀이 내용
후행절 사건 실현과의 관계	가정, 조건
현실과의 관계	비단정/양보의 가정
후행절 내용과의 관계	설명
	이야기 도입

이제 국어사전에서 연결 어미로 쓰이는 ‘-으면’과 ‘-다면’의 뜻풀이로 제시된 의미를 모두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연결 어미 ‘-으면’과 ‘-다면’의 의미

구분	-으면	-다면	
기본 의미	가정적 조건	가정, 조건	
주 변 의 미	사건의 확실성	불확실	-
	사건 실현의 확실성	확실 또는 불확실	-
	사건의 종결 양상	미완료	-
	현실과 사건의 관계	현실화에 대한 희망	비단정/양보 가정
	후행절 사건 실현과의 관계	후행절 사건 실현에 대한 근거/조건	가정, 조건
		후행절 사건 실현을 위한 반복적 상황에 대한 조건	
	후행절 내용과의 관계	후행절 내용에 대한 근거	설명
후행절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		이야기 도입	

먼저 ‘-으면’과 ‘-다면’의 기본 의미는 완전한 동일성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이는 ‘-으면’의 ‘가정적 조건’이 결과적으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비해, ‘-다면’은 ‘가정’과 ‘조건’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결국 두 연결 어미의 공통 의미는 ‘조건’이지만, ‘-으면’의 ‘가정적’이라는 의미와 ‘-다면’의 ‘가정’ 사이에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로 말미암아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¹³⁾

다음으로 주변 의미를 살펴보면, '-으면'의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확실성, 불확실성, 근거, 조건' 등을 주로 나타낸다. 이에 비해 '-다면'의 경우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기본 의미와의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다면'의 의미를 중심으로 '-으면'의 의미와 구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으면'과 '-다면' 연구 방법에 대한 제언

여기에서는 '-으면'과 '-다면'과 관련된 몇몇 앞선 연구에서의 처리 방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 기능과 함께 선·후행절의 실현 양상 등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용례를 중심으로 한 '-으면'과 '-다면'의 의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잠깐 『표준』에 제시된 '가정'과 '조건'의 뜻을 살펴보자.

- (3) ㄱ. 가정7(假定) 「명」 「1」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2」 『철학』 결론에 앞서 논리의 근거로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움. 또는 그 조건이나 전제. 「3」 『수학』 정리에서, 어떤 조건을 임시로 내세움. 또는 그 조건.
- ㄴ. 조건2(條件) 「명」 「1」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 「2」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 「3」 『법률』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실에 의하여 제한하는 일.

13) 『표준』에서의 '가정적'과 '가정'의 뜻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발간된 국어사전의 뜻풀이들은, 말뭉치에서의 실제 용례를 통해 추출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긴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 용례의 의미를 정리하여 개념화한 것이 국어사전에서의 뜻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에서의 뜻풀이 처리 방법과, 각각의 뜻풀이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용례와 서로 차이를 보이는 전형적인 용례 등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ㄱ)에서처럼 ‘가정’은 ‘사실성’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비사실성’, ‘불명확한 사실성’, ‘판단’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조건’은 (3ㄴ)에서처럼 ‘사건의 성립’, ‘결정’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판단’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판단’의 과정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이 글에서 ‘-으면’과 ‘-다면’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로, 선·후행절 연결의 논리성과 타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¹⁵⁾

- (4) ㄱ. 선·후행절 사건의 의미적 관련성: 선·후행절의 명제 내용, 선·후행절의 인식 논리적 타당성, 실제 결과 상황, 예상되는 결과 상황, 화자의 판단과 그 근거 등
- ㄴ. 시제 실현 양상과의 관련성
- ㄷ. 접속 부사와의 교체 양상: ‘그러면’, ‘그렇다면’과의 교체 양상¹⁶⁾

14) 한국어학에서는 ‘조건’과 ‘가정’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개념 정의를 찾기 어려웠다. 물론 형식 의미론이나 논리 의미론 등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가정’의 개념은 있지만, 해당 분야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조건’과 ‘가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5)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 방법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이나 논리성 등을 먼저 진단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 자료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유형 분류 등은 다른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16) 국어사전의 ‘그러면’, ‘그럼’, ‘그렇다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표준』	『고려』	『연세』
그러면	표제어 부사 (활용형과 다의어)	부사 (활용형과 동음이의어)	부사
	뜻풀이	동일함 • ㉠② 더 있음 • 용언 활용형의 의미 제시 없음	
그럼	표제어 부사 (‘그러면’의 준말) (활용형과 다의어)	부사 (‘그러면’의 준말) (활용형과 동음이의어)	부사 (‘그러면’의 준말 아님)
	뜻풀이	• 기본 의미: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기본 의미: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조건이 됨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그렇다면	없음	있음	없음

위의 사항들 중에서도 ‘실제 상황’과 ‘화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가정’의 의미는, 선행절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실제 상황’과 반대된다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은 ‘화자’가 판단할 때,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현의 모호성에 대한 판단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후행절에는 선행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화자’의 생각이나 판단 등이, 일반성이나 타당성, 예측 가능성 등이 고려된 사건이 제시되어야 한다.¹⁷⁾

따라서 선행절에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어서 ‘-다면’이 실현될 때에는, 후행절로 연결되는 명제 내용(사건)이 제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 (5) ㄱ. 내가 만약 새라면, 마음대로 날아갈 텐데.
- ㄴ.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갈 수 있을 텐데.
- ㄷ. *내가 만약 새라면, 날아가지 못할 텐데.
- ㄹ.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갈 수 없을 텐데.

(5)의 선행절은 모두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5ㄱ, ㄴ)의 후행절은 연결 가능하지만, (5ㄷ, ㄹ)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선행절의 사건이 나타내는 ‘가정’ 의미가, 후행절에 연결되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선행절의 내용에 따라 후행절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 (6) ㄱ. 봄이 오면, 너는 뭘 하고 싶니?
- ㄴ. ?*봄이 온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¹⁸⁾
- ㄷ.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 ㄹ.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거야.

17)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양태’와도 상당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일반적으로 예문의 문법성 측면에서 어색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와, 비문법적임을 나타내는 ‘*’를 사용한다. 이 글에서 이들을 함께 사용한 ‘?’* 기호는, ‘완전히 비문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지 못함’을 의미한다.

(6ㄱ)의 선행절 사건은 자연의 법칙으로서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조건의 '-으면'이 실현된다. 하지만 (6ㄴ)의 선행절 사건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인식되므로, '-다면'이 실현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는 (6ㄷ, 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으면'이 '조건'과 '가정'의 의미 기능을 모두 나타낸다는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으면'의 '가정'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 의미는 '가정'이 아닌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6ㄱ)의 선행절의 사건은 당연히 현재 상황이 아니지만, 그 상황이 언젠가는 실현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과 '상반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상황이며, 또한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동일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화되었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7) ㄱ. (6개월 후 결혼하기로 한 상황) ?*내가 나중에 너랑 결혼한다면, 여왕처럼 잘해 줄 거야.
 ㄴ. (혼자만의 상상) 내가 나중에 너랑 결혼한다면, 여왕처럼 잘해 줄 거야.

(7ㄱ)은 이미 결혼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상황이므로, 선행절은 '가정'보다는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타당하다. 따라서 '-다면'보다는 '-으면'이 실현되어야 더 자연스러운 발화가 되어 의미 해석이 분명해진다. 반면, (7ㄴ)은 화자가 상상하는 상황이므로, 선행절은 그러한 상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가정'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8) ㄱ. 오늘 철수가 여기에 나타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ㄴ. ?*오늘 철수가 여기에 나타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ㄷ. 나중에 비가 오면 어찌려고. 우산 가져가.
 ㄸ. *나중에 비가 온다면 어찌려고. 우산 가져가.

(8ㄱ)의 선행절에 실현된 '-으면'은, 후행절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에 근거한다. 즉, 후행절의 판단을 확고하게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의 사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근거와 믿음을 나타내므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면'이 실현된다. 그리고 전체 문장은 선행절 사건의 실현이 절대 불가능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8ㄴ)처럼 선행절이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면, 불확실성의 의미가 발현되어 (8ㄱ) 전체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8ㄷ)은 (8ㄱ)과 마찬가지로, 선행절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8ㄷ)처럼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이 쓰일 수 없다.¹⁹⁾

그러므로 '-으면'과 '-다면'의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9) ㄱ. -으면 : 조건, 화자가 실현될 것이라 믿거나 실행하고자 하는 후행절 성립 근거로서의 선행절
- ㄴ. -다면 : 가정

1) 선·후행절 사건의 의미적 관련성

여기에서는 선·후행절의 명제 내용, 선·후행절의 인식 논리적 타당성, 실제 결과 상황, 예상되는 결과 상황, 화자의 판단과 그 근거 등과 관련하여 '-으면'과 '-다면'에 대해 살펴본다.

잠깐 '-으면'과 '-다면'의 의미 기능을 비교한 박유경의 몇몇 예들을 자료로 삼아 살펴보자.²⁰⁾ 여기에서는 다음의 예를 제시하며 화자가 조건절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지 아니하여 조건절의 내용을 '가정'할 경우에

19) '-으면'과 '-다면'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실현은, 결국 특정 상황에서 의미적으로 '연결'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선행절이 실현되면, 한국어 화자들은 후행절에 실현될 사건들을 선행절과의 '연결' 관계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20) 박유경, 「조건 연결어미 “-다면”의 용법」, 『한국어 의미학』 50, 한국어 의미학회, 2015, 46~48쪽.

는 ‘-다면’이 허용되고, 화자가 조건절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다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였다. 즉, ‘-으면’은 가정적/비가정 조건문에 모두 쓰이지만, ‘-다면’은 가정적 조건문에만 쓰인다는 것이다.²¹⁾

- (10) ㄱ. 비가 많이 오면/온다면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ㄴ. 철수가 도서관에 있으면/있다면 시험공부를 시작한 게 틀림없다.
 ㄷ. 내가 여웃돈이 있었으면/있었다면 너에게 빌려줄 수 있을 텐데.
- (11) ㄱ. (TV 설명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누른다면 TV의 전원이 켜집니다.
 ㄴ.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거기 서 계시면/*계신다면 위험합니다.
 ㄷ. (곧 미국여행을 앞둔 딸에게) 미국에 도착하면/*도착한다면 엄마한테 전화해!

(10ㄱ)의 후행절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행절 ‘가정’이 아닌 ‘조건’이 필요하다. 즉,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선행절의 정보가, ‘가정’의 의미와 관계없이 후행절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선행절의 사건은 후행절의 사건으로 이어질 충분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그렇다면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에서 보듯이, ‘가정’의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조건’의 의미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10ㄴ)의 후행절 내용에 해당하는 화자의 확신을 위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절 사건에 대해서 철수가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함을 드러낸다. 이처럼 선행절 사건은 후행절에 대한 올

21) 이에 따라 조건문의 종류에 따른 ‘-다면’과 ‘-면’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조건문의 종류		-면	-다면	조건문의 종류		-면	-다면
가정적	직설법적 조건문	○	○	비가정적	총칭적 조건문	○	×
	인식적 조건문	○	○		직시적 조건문	○	×
	반사실적 조건문	○	○		시간적 조건문	○	×

결국 ‘-면’은 ‘가정’과 ‘비가정’의 의미 모두 나타내지만, ‘-다면’은 ‘가정’의 의미만 나타낸다는 것이다.

바른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의 실현이 더 자연스럽다.

(10ㄷ)에서 선행절은 과거로, 후행절은 현재로 실현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절의 시제가 후행절에 앞서기 때문에 선행절은 '완료'된 상태이다. 그리고 선행절은 돈이 없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가정'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후행절에서도 실제 상황에서 돈을 빌려 주지 못했음을 나타내므로, '가정'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11)은 모두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모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에, '-으면'의 실현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10)과 (11)의 의미적 사항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10)의 선·후행절과 관련된 의미적 사항

	기정사실	판단의 근거	선행절 관련 실제 상황	화자의 판단 예상 결과 상황	실제 결과 상황	어미
ㄱ	경기 개최	비가 많이 옴 → 경기 취소	비가 옴	경기 취소	경기 취소 안 됨	-으면
ㄴ	〈불확실〉	철수 도서관에 있음 → 시험공부	〈불확실〉	철수가 시험공 부 시작했음	〈불확실〉	-다면
ㄷ	돈 빌려 달 라는 요청	여웃돈이 있음 → 빌려줌	나에게 여웃 돈 없었음	돈을 빌려줌	돈 빌려주 지 못함	-다면

〈표 12〉 (11)의 선·후행절과 관련된 의미적 사항

	기정사실	판단의 근거	선행절 관련 실제 상황	예상 결과 상황	실제 결과 상황	어미
ㄱ	전원 버튼 누름 → TV 켜짐	전원 버튼 누름 → TV 켜짐	TV 켜려고 함	TV 켜짐	전원 버튼 안 누름	-으면
ㄴ	길 한가운데 서 있음 → 위험함	길 한가운데 서 있음 → 위험함	거기 서 있음	위험함 ²²⁾	거기 서 있 음	-으면
ㄷ	미국 여행	미국 여행 (→ 걱정)	미국 도착 예정	엄마한테 전화	미국 미도 착	-으면

위 표에 제시한 여러 의미적 사항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정사실'은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행절에서 나타난다.²³⁾ 예를 들어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선행절의 사건이 '가정'이 되어 후행절의 결과가 된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② '판단의 근거'는 선행절과 관련하여 어떠한 후행절의 사건이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의미한다. ③ '화자의 판단'은 말 그대로 화자의 인식이나 일반성 등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 ④ '선행절 상황'은 선행절에 나타난 사건의 상황을 말한다. ⑤ '예상 결과 상황'은 선·후행절의 내용으로 볼 때 예상되는 결과 상황을 의미한다. ⑥ '실제 결과 상황'은 선행절이나 후행절의 내용으로 볼 때, 실제로 결과 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표 11>과 <표 12>를 보면, (10)과 (11)에는 다소 다른 판단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10)에서는 화자의 판단과 '예상 결과 상황'이, (11)에서는 '예상 결과 상황'만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1)에서처럼 '-으면'이 실현될 경우에는 화자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후행절 사건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자연 법칙이나 일반적 통념상 선행절 사건과 관련된 후행절 사건(결과)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상황'과 관련해서 (11)에서는 후행절과 관련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다면'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²⁴⁾ (10)에서는 (10ㄴ)만 '실제 상황'이 상정될 수 없고, 나머지는 '실제 상황'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10ㄴ)에는 '-다면'이 실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²⁵⁾ 그런데 (10ㄱ, ㄷ)은, (11)과 달리, 선행절과 관련된 사건이 '실제 상황'으로 상정된다. 다만, (10ㄱ)은 일반적인 통념상 선행절의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후행절의 사건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으면'이 자연스럽고, (10ㄷ)은 실제 상황

22) 이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예상 결과로서의 상황이다.

23) 다만, '가정'의 의미 기능을 나타낼 경우에는 불확실하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

24) 여기서의 '실제 상황'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속에서 실제 사건의 발생 상황을 뜻한다.

25) 물론 '-으면'의 '가정적 조건' 의미 때문에 '가정'의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에서는 '조건'보다는 '가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다면'이 더 적절해 보인다.

과 반대되는 상황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다면’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면’의 ‘가정’ 의미로 말미암아 후행절과 관련된 ‘실제 상황’이 어야 하거나, ‘실제 상황’ 자체가 상정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으면’과 ‘-다면’은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 기능을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실제 상황이나 예측 가능한 상황, 화자의 인식이나 판단 등과 같은 ‘상황’과 ‘양태’ 등을 바탕으로 그 의미 기능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어사전에 제시된 예문들을 검토해 본다.²⁶⁾ 아래는 연결 어미로 쓰인 ‘-다면’의 기본 의미에 대한 예로 제시된 것이다.

- (12) ㄱ. 만일 어제 서울에 눈이 왔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표준』)
- ㄴ. 네가 그 꼴을 보았다면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표준』)
- ㄷ. 사람을 죽이고 짐을 뺏어 갔다면 살인 강도네 그 살인 강도가 버젓하게 잘 살고 있단지요?(『연세』)
- ㄹ. 나를 찾은 용건이 사과하는 것이었다면, 개의치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연세』)
- ㅁ.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싼 물건이 좋겠지요.(『고려』)
- ㅂ. 네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번만은 용서를 해 주마.(『고려』)

(12ㄱ)은 선·후행절의 사건이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정’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절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후행절이 분명하게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제 서울에 {폭설이 왔다/내렸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가 더 분명한 예문이 될 것이다.

(12ㄴ)은 주체인 ‘너’의 성향과, 후행절 사건이 결과로 나타나는 데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곧 화자가 알고 있는 ‘너’의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화자가 예측할 때, 선행절의 사건을

26) 물론 전체 말뭉치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이 글에 모두 제시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어사전의 예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표제어의 해당 의미를 전형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문들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겪으면 당연히 기절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화자에게는 충분히 있을 때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이다.²⁷⁾ 따라서 ‘조건’의 ‘-으면’이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12ㄷ)은 ‘-다면’으로 연결된 선·후행절의 경계 문제가 발생하여 화자의 판단이나 예상 결과 상황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다면’의 선행절은 ‘사람을 죽이고 짐을 뺏어 가다’로서 이 자체가 꺾문장이며, 후행절은 ‘살인강도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그 살인강도가 버젓하게 잘 살고 있다니요?’라는 절이 또다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살인강도’에 대한 내용이 선행절이라 보아야 하므로 ‘사람을 죽이고 짐을 뺏어 가다’를 선행절로 볼 수밖에 없으며 후행절은 ‘살인강도이다’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그 뒤의 절이 사실성의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다면’의 선행절은 ‘가정’의 의미가 될 수 없다. 즉, 살인강도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실제 상황이 되므로, 살인강도가 발생한 것 역시 실제 기정사실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문에 실현된 ‘-다면’은 ‘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어서 부적합하므로 ‘-으면’으로 교체해야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덧붙여 해당 어미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예문의 구조가 단순한 것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12ㄹ)은 선행절의 사건을 화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후행절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가정’의 ‘-다면’이 적절하다.

(12ㄴ)에서 후행절의 판단은, 상품 선택에서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값이 싼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이라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즉, 선행절의 ‘가정’이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조건이 같다’는 데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실제 어떠한 상황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다면’의 예문으로는 부적합하여 ‘-

27) 다만, 박유경, 앞의 논문, 2015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의 발화로 새롭게 얻어진 내용(습관적/관계적인 절차로서) 사실로 받아들여더라도 자신의 추론의 근거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서는 ‘-다면’을 쓸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화자가 추론한 근거가 일반적이고 확실성을 띤 분명한 것임을 강조한다면, ‘가정’의 의미보다는 ‘조건’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으면’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12b)은 청자에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하는 심문이나 조사 등의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다면’의 의미 기능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더구나 선·후행절의 의미적 관계가 ‘가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후행절에서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화자의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행절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나 근거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후행절 사건의 연결을 고려할 때, ‘-다면’의 예문으로서는 부적합하므로 오히려 ‘-니까’, ‘-니’ 등이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12)의 선·후행절과 관련된 의미적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3〉 (12)의 선·후행절과 관련된 의미적 사항

	기정사실	판단의 근거	선행절 관련 실제 상황	화자의 판단· 예상 결과 상황	실제 상황	어미
ㄱ	어제 서울에 눈이 안 왔음	(서울에 눈이 오 면 길이 막힘)	어제 서울에 눈 안 왔음	길 막혀 고생 했음	길 안 막혀 고 생 안 했음	-다면
ㄴ	네가 그 꼴을 안 보았음	(그 꼴이 기절할 정도임)	네가 그 꼴을 안 보았음	기절했음	기절하지 않 았음	-으면
ㄷ	살인 후 짐을 뺏어 감	살인 후 짐을 뺏 어 감	살인 후 짐을 뺏어 감	살인 강도임	〈불확실〉	-으면
ㄹ	나를 찾아옴	나에게 사과함	〈불확실〉	개의치 없음	〈불확실〉	-다면
ㅁ	조건 같으면 싼 물건 좋음	(조건 같으면 싼 물건 좋음)	다른 조건이 같음	싼 물건이 좋음	조건 같으면 싼 물건 좋음	-으면
ㅂ	〈불확실〉	네가 그 사실을 몰랐음	〈불확실〉	용서해 줌	〈불확실〉	-니까 -니

28) 이처럼 예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네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 / 너의 행동이 실수가 될 수도 있어.}”나 “네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용서받을 수 없겠지. / 너의 행동이 실수가 될 수 없어.}” 등과 같은 선·후행절의 관계로 제시되어야만 ‘-다면’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등과 같은 내용의 후행절이 실현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따라 (12)의 일부 예문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 (13) ㄱ. (12ㄴ →) 네가 그 꼴을 보았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 ㄴ. (12ㄷ →) 사람을 죽이고 짐을 뺏어 갔으면 살인 강도네 그 살인 강도가 버젓하게 잘 살고 있다니요?
- ㄷ. (12ㄹ →) 다른 조건이 같으면 짠 물건이 좋겠지요.
- ㄹ. (12ㅁ →) 네가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번만은 용서를 해 주마.

한편,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 (14) ㄱ. 가능하면, 이번 주에 한번 봅시다.
- ㄴ. 가능하다면, 이번 주에 한번 봅시다.

(14ㄱ)에서는 후행절 사건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화자’의 입장이 드러나므로, 화자의 강한 소망이나 바람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으면’이 ‘화자 중심’의 ‘조건’ 의미를 나타내며, 청유형 문장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강한 소망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14ㄴ)은 화자보다는 ‘청자’의 입장과 상황 등을 고려한 제안이다. 결국 후행절 사건의 성립은 청자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므로, 문장이 청유형으로 실현되어 ‘청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겠다.

2) 시제 실현 양상과의 관련성

김수정·최동주에서는 ‘-면’ 조건문의 경우, 내용 조건일 때에는 상대 시제, 인식 조건일 때에는 절대 시제가 성립한다고 하며 조건절이 과거 상황이면 ‘-았-’의 출현이 필수적이라 하였다.²⁹⁾

- (15) ㄱ. 내가 (가면, *갔으면) (항상) 그 사람이 마중 나왔지.
- ㄴ. 맨날 술 먹으면 욕이나 하면서.

29) 김수정·최동주, 「‘-면’ 조건문의 유형과 시제」, 『언어』 43-2, 한국언어학회, 2018, 215~216쪽.

이에 (15)가 모두 습관적/충칭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상황을 내용 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과거 상황을 내용 조건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누적된 후 일반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³⁰⁾

(15ㄱ)에서 선행절에 과거 시제가 실현될 경우에는 비문법적이라 하였는데, ‘항상’이라는 부사가 실현될 때만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항상’이 실현되지 않으면 문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화된 사건의 축적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곧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중 나오지 않았다’의 의미가 일회성만을 확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선행절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전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후행절의 사건 실현의 일반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5)는 선행절의 조건이 충족되면 항상 후행절의 사건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15ㄱ)은 선행절이 조건을 나타내는데,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었-’이 출현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런데 (15ㄱ)의 선행절은 과거 상황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후행절의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15ㄱ)에서는 ‘항상, 언제나, 꼭, 반드시’ 등의 부사어가 있어야 그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부사어가 없으면 과거 시제가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의미 해석은 과거에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중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15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맨날’이라는 부사어가 선행절에 있던 후행절에 있던 결과는 동일하다. 즉, ‘맨날’이 선행절에 있으면 ‘술을 먹는’ 행위가 계속됨을 의미하고, 후행절에 있으면 술을 먹으면 ‘맨날’ ‘욕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15ㄴ)은 후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술을 먹으면 ‘맨날’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15ㄱ)은 ‘어느 날 화자가 갔는데 그 사람이 마중 나온 것’을 나타

30) 만약 미래 상황인 경우에는 일반화를 거치지 않고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회적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였다.

낼 수 없어서 '-었-'이 실현될 수 없다 하였다.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 과거 상황을 내용 조건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누적된 후 일반화를 거쳐야 함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유가 (15ㄱ)에서 '-었-'이 실현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일회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기 곤란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화자가 갔을 때 언제나 그 사람이 마중을 나온 사실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이미 일반화되었으므로 선행절이 과거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과장, 허세' 등의 의도를 나타낸다면 (15ㄱ)이 성립된다.

(16) (공항에서 우연히 좋아하던 유명 연예인을 처음으로 본 적이 있다.)

가1: 나 며칠 전에 A씨 봤어.

ㄱ. (언제나) 내가 공항에 {가면/*갔으면} 보게 된다니까.

ㄴ. (언제나) 내가 공항에 {가면/*갔으면} 보게 됐다니까.

ㄷ. (언제나) 내가 공항에 {가면/*갔으면} 보게 될 거라니까.

나1: 어찌다 우연히 본 거겠지.

가2: ㄱ. 아냐. (언제나처럼) 오늘 내가 공항에 {가면/갔으면} (또) 볼걸.

ㄴ. 아냐. (언제나처럼) 어제 내가 공항에 {*가면/갔으면} (또) 봤을걸.

ㄷ. 아냐. (언제나처럼) 다음에 내가 공항에 {가면/*갔으면} (또) 볼걸.

(16가1)은 사실은 화자가 대상을 본 적이 한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장하여 발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었-'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15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과장이나 허세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그 근거를 나름대로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떨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16가1)에서처럼 후행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선행절에는 현재만 실현됨으로써 과장의 근거가 마련되므로 후행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한편, (16가2)에서처럼 선행절의 시제와 후행절의 시제가 서로 관련성을

맺기도 한다. (16가2ㄱ)에서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는 공항에 간 시간이 후행절과 같거나 앞서야 하므로, ‘-으면’과 ‘-있으면’이 모두 실현 가능하다. 이때 후행절의 ‘-르걸’은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도 나타내기 때문이다. (16가2ㄴ)은 선행절에 이미 과거의 시간 부사가 실현되어 있으므로 ‘-으면’에 ‘-었-’이 실현되어야 하며, 후행절도 과거가 되어야 한다. (16가2ㄷ)은 선행절이 미래 시제이므로, ‘-으면’에 ‘-었-’이 실현되면 논리적으로 사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15ㄴ)은 일회성 사건에 쓰일 수 없다 했는데, 이는 ‘맨날’이라는 부사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16)과 같은 의도로 발화한 것이라면 일회성 사건에도 쓰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래 상황인 경우에는 일반화를 거치지 않고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회적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였다.³¹⁾

- (17) ㄱ. 넌 술 {먹으면, *먹었으면} 나한테 욕이나 하면서.
- ㄴ. 넌 술 {먹으면, *먹었으면} 나한테 욕이나 했으면서.
- ㄷ. 넌 술 {먹으면, *먹었으면} 나한테 욕이나 할 거면서.
- ㄹ. 넌 술 {*먹으면, 먹었으면} 나한테 욕이나 했을 거면서.

(17)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으면’과 ‘-있으면’의 선·후행절 시제 실현 양상과 그 의미

구분	선행절 시제	-으면 /-있으면	후행절 시제	비고	의미
ㄱ	현재	-으면	현재	내용 조건	반사실, 사실 예측(확신)
ㄴ	현재	-으면	과거	내용 조건	반사실, 사실 경험
ㄷ	현재	-으면	미래	인식 조건	반사실, 사실 예측(확신)
ㄹ	과거	-있으면	과거 추측	인식 조건	반사실, 사실 예측(확신)

31) 김수정·최동주, 앞의 논문, 216쪽.

(17ㄷ)에서처럼 미래 상황을 나타낼 때에도, 현재까지의 경험이나 상황 등으로 볼 때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일반화를 거쳐야만 선행절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시제뿐만 아니라 ‘추측’이나 ‘예측’이라는 양태적 의미도 함께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들 예의 후행절 시제를 바꾸고, ‘항상’이라는 부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³²⁾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 (18) ㄱ. 내가 (가면, ?갔으면) 그 사람이 마중 나오지.
 ㄴ. 맨날 술 (먹으면, *먹었으면) 욕이나 했으면서.

(18ㄱ)은 후행절을 현재로, (18ㄴ)은 후행절을 과거로 교체한 것이다. 먼저 (18ㄱ)에서 선행절이 현재인 경우, 후행절 사건의 성립 조건이 ‘일반화, 습관성’ 등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선행절 사건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현되면 당연히 후행절의 사건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후행절 사건 성립의 핵심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한 화자의 강한 믿음이 바탕 되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이전 경험에 따른 ‘일반화, 습관성’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화자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 후행절 사건의 성립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 조건일 때에는 상대 시제, 인식 조건일 때에는 절대 시제가 성립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18ㄱ)에서 선행절이 과거인 경우에는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절에 과거가 실현되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을 가정했는데, 후행절에서는 확정적인 판단의 결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절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전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후행절의 사건 실현의 일반화가 확보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완전히 비문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18ㄴ)에서 선행절이 현재인 경우는, 후행절이 과거이므로 적어도 과거

32) (15ㄱ)에서 부사 ‘항상’ 제시 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이 실현되든 안 되든 일반화와 관련된 습관적/충칭적 의미로 해석된다고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 그 시점까지는 선행절 사건의 일반화가 가능하므로 문법적이다. 또한 선행절의 사건은 (18ㄱ)에서처럼 ‘가정’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부사 ‘맨날’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오로지 습관화와 일반화의 의미만 띠 뿐이다. 그런데 (18ㄴ)에서처럼 선행절이 과거인 경우에는, 후행절과 동일한 시제라는 점에서 문법적일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선행절이 과거이면 그 사건은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후행절에는 행위의 완료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가 실현될 수 없으며 선행절 조건에 대한 그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나 인식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³³⁾

다음으로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실현된 경우를 살펴보자.

- (19) ㄱ. 내가 (가면, *갔으면) 그 사람이 마중 나오겠지.
- ㄴ. 맨날 술 (먹으면, *먹었으면) 욕이나 할 거면서.

(19ㄱ)에서 선행절이 현재이면 후행절의 미래 때문에 ‘가정’의 의미가 나타나며, 선행절이 과거이면 후행절 미래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19ㄴ)에서 선행절이 현재이면, 이 발화 이전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성립 가능하다. 즉, 상대방이 화자에게 ‘맨날 술을 먹으라’는 요구를 해야 하며, 그에 대해 화자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위 등을 일반화나 습관화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절이 과거이면 (19ㄱ)과 마찬가지로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 (20) ㄱ. 내가 (*가면, 갔으면) 그 사람이 마중 나왔겠지.
- ㄴ. 맨날 술 (?먹으면, *먹었으면) 욕이나 (했을 거면서 / *했겠으면서).

(20ㄱ)에서 선행절이 과거이면 ‘가정’의 의미가 나타나므로, 후행절에서는 그 과거 사건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었겠-’이 실현되

33) 맨날 술 먹었으면, (몸이 안 남아날 거야./이젠 그만 마실 때도 되었지./내가 아직 살아 있겠니?)

어야 한다. 선행절이 현재이면, 후행절의 시제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20ㄴ)에서 선행절이 과거이며 '가정'의 의미가 나타나지만, 후행절에서는 '-었을 것'이 실현될 수 없다. 이는 (20ㄴ)과 동일한 이유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면' 조건문의 유형과 함께, 그것을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런데 조건문의 선·후행절 실현 양상과, 특정 시제 실현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는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박유경·허세문·임동식에서는 반사실성 해석이 가능한 조건문에서 '-면'과 '-다면'이 자유롭게 교체되는 예가 많으므로 '-다면'의 용법이 반사실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³⁴⁾ 여기서는 편의상 앞 (15ㄴ)의 '-으면'과 '-었으면'을 '-는다면'과 '-었다면'으로 교체하고, 선·후행절의 주체를 제시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본다.

- (21) ㄱ. 넌 술 (*먹는다면, *먹었다면) 나한테 욕이나 하면서.
 ㄴ. 넌 술 (*먹는다면, *먹었다면) 나한테 욕이나 했으면서.
 ㄷ. 넌 술 (*먹는다면, *먹었다면) 나한테 욕이나 할 거면서.
 ㄹ. 넌 술 (*먹는다면, *먹었다면) 나한테 욕이나 했을 거면서.

(21)에서 보듯이, 선·후행절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다면'의 용법이 '반사실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선·후행절에서 나타나는 사건 사이의 논리 의미적 관계로 인해 그 실현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 (22) ㄱ. 술만 (먹으면, *먹었으면) 욕이나 하면서.
 ㄴ. 술만 (먹으면, *먹었으면) 욕이나 했으면서.
 ㄷ. 술만 (먹으면, *먹었으면) 욕이나 할 거면서.

34) 박유경·허세문·임동식, 「한국어 반사실 조건문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59, 한국어 의미학회, 2018, 160쪽.

ㄹ. 술만 (*먹으면, 먹었으면) 욕이나 했을 거면서.

결국 조건문에서 선·후행절의 시제는, 실제 사건과 그에 대한 인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재든 과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3) 접속 부사와의 교체 가능성

이제 연결 어미들을 접속 부사로 교체했을 때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³⁵⁾ 이때 선·후행절의 시제를 후행절과 관련하여 현재와 미래로 교체하고, 종결 표현도 추측과 단정으로 교체하여 살펴본다.³⁶⁾

- (23) ㄱ. 네가 그 꼴을 보았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 ㄴ. *네가 그 꼴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 ㄷ. 네가 그 꼴을 보았다. 그러면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 ㄹ. ?네가 그 꼴을 본다. 그러면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35) 『표준』에는 ‘그렇다면’을 부사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고려』에서는 부사로 설정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후자에 기대어 ‘-으면’과 ‘-다면’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를 각각 ‘그러면’과 ‘그렇다면’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36)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 2009에 제시된 접속 부사 ‘그러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가 표시).
‘그러면’은 ‘그리하다’나 ‘그려하다’에 연결 어미 ‘-면’이 통합하여 이루어진 ‘그리하면’이나 ‘그려하면’에서 기원한 부사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데서 ‘ㅎ’가 탈락하면서 현재와 같은 ‘그러면’으로 굳어진 것이다.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15세기의 자료에서는 유성음 사이에 위치하는 ‘ㅎ’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데서 ‘그러면’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에 소급하는 형태는 15세기부터 나타나는 데, ‘그러면’과 ‘그려하면’이 나타난다. 이는 ‘그리하다’와 같은 ‘그리’ 계열보다는 ‘그려하다’와 같은 ‘그려’ 계열에서 기원하는 형식이 주로 쓰였던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16세기부터는 ‘그러면’과 ‘그려하면’이 ‘그리’ 계열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그리’ 계열과 ‘그려’ 계열은 이후 계속 공존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와 달리 “그리”는 부사의 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사+하-(ㅎ-)’의 구성으로도 해석되었기 때문에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9세기에 이르면 ‘그러면’은 “그러면, 그리면, 그르면” 등의 많은 이형태로 나타나면서 내부 구성을 잃은 단어로 정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현대 국어의 ‘그러면’으로 쓰이게 되었다.

- (24) ㄱ. 사람을 죽이고 짐을 뺏어 갔으면 살인강도이다.
 ㄴ. 사람을 죽이고 짐을 뺏어 갔다. 그러면 살인강도이다.
 ㄷ. 사람을 죽이고 짐을 뺏어 간다. 그러면 살인강도이다.
 ㄹ. *사람을 죽이고 짐을 뺏어 갔을 것이다. 그러면 살인강도이다.
- (25) ㄱ. 다른 조건이 같으면 짠 물건이 좋겠지요.
 ㄴ. *다른 조건이 같은 것이다. 그러면 짠 물건이 좋겠지요.
 ㄷ. *다른 조건이 같았다. 그러면 짠 물건이 좋겠지요.
 ㄹ. 다른 조건이 같다. 그러면 짠 물건이 좋겠지요.

연결 어미 '-으면'을 '그러면'으로 교체했을 경우, 모든 경우가 문법적이지는 않았다. (23ㄴ)에서처럼 선·후행절의 시간 표현을 동일하게 했을 경우, 논리적인 시간의 연결이 불가능하여 비문법적이 된다.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의 결과에 대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 선행절에 과거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현재가 실현되면 어색하다. 이는 후행절 시간 표현으로 '-있을 것이다'가 실현되어 과거에 대한 추측 표현이라는 점에서 선행절에서도 과거가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24ㄴ, ㄷ)의 후행절은 '-이다'가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선행절에는 '지정'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거와 현재 시제로써 확정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런데 (24ㄹ)은 선행절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후행절의 지정이나 단정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25ㄴ)은 후행절 '-겠-'의 추정 판단에 기인하여 선행절도 추측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데도 비문법적이다. 이는 후행절의 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짜다'는 것 이외의 조건이 모두 확정적인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5ㄷ)은 선행절이 과거로 실현되어 확정적인데도 비문법적이다. 이는 선행절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후행절 역시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그래서 짠 물건이 좋다/좋았다'로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 (26) ㄱ. 만일 어제 서울에 눈이 왔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

- ㄴ. *만일 어제 서울에 눈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
- ㄷ. *만일 어제 서울에 눈이 온다. 그렇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
- ㄹ. 만일 어제 서울에 눈이 왔다. 그렇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

- (27) ㄱ. 나를 찾은 용건이 사과하는 것이였다면, 개의치 않으니 이제 돌아가라.
- ㄴ. *나를 찾은 용건이 사과하는 것이였다. 그렇다면 개의치 않으니 이제 돌아가라.
 - ㄷ. ?나를 찾은 용건이 사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의치 않으니 이제 돌아가라.
 - ㄹ. 나를 찾은 용건이 사과하는 것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의치 않으니 이제 돌아가라.

(26ㄴ)은 후행절 ‘-겠-’의 추측 의미에 맞추어 선행절에 추측 표현이 실현되었지만, 사건의 선후 관계의 비논리성이 나타난다. (26ㄷ)은 선행절의 시제가 서로 맞지 않아서 비문법적이다.

(27ㄱ)은 선행절 사건에 대해 화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므로, (27ㄴ)이 비문법적이다. (27ㄷ)은 선행절이 단정이나 지정이므로, 엄밀하게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후행절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 화자의 마음속에 선행절 사건을 단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색하기는 해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으면’과 ‘-다면’의 의미와 쓰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연결 어미의 의미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유형화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으면’과 ‘-다면’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구별하여, 그 쓰임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본 시도를 보이려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어사전에서의 ‘-으면’과 ‘-다면’의 의미 기능 검토
- 2) ‘-으면’과 ‘-다면’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안
 - ① ‘-으면’은 ‘조건’, ‘-다면’은 ‘가정’의 의미 기능으로 파악
 - ② 선·후행절과 관련된 의미적 사항 검토: ‘-으면’과 ‘-다면’의 양태성
 - ③ 선·후행절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논리성과 타당성
 - ④ 선·후행절의 시제 실현 양상
 - ⑤ 연결된 선·후행절의 인식 논리적 타당성: 상황을 중심으로 한 ‘-으면’과 ‘-다면’의 쓰임 검토
 - ⑥ 접속 부사와의 교체 가능성

이 논의와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말뭉치 자료의 예문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으면’과 ‘-다면’의 의미 기능 분리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료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들을 분류해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으면’과 ‘-다면’을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으면’과 ‘-다면’을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자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2. 논저

김도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으면'의 교육 방안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문기, 「한국어 '-으면'과 '-었으면'의 교수·학습을 위한 제언」, 『동남어문논집』 38, 동남어문학회 2014.

김문기·김형복, 「한국어 문법 '-으면'과 '-었으면'의 교수 학습 내용 연구」, 『인문학연구』 10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문기·최정도, 「'-면' 통합형 어미의 유형과 특성」, 『우리말연구』 31, 우리말학회, 2012.

김수정·최동주, 「'-면' 조건문의 유형과 시제」, 『언어』 43-2, 한국언어학회, 2018.

김수태, 『마침법 씨끝의 융합과 그 한계』, 박이정, 2005.

나혜숙,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건 관계 연결어미 습득 양상 연구: '-(으)면, -거든, -어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유경, 「조건 연결어미 "-다면"의 용법」, 『한국어 의미학』 50, 한국어 의미학회, 2015.

박유경·허세문·임동식, 「한국어 반사실 조건문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59, 한국어 의미학회, 2018.

박정운, 「한국어 조건문의 인식태도」, 『담화와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2006.

서상홍,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 '-면'과 '-다면'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왕루한, 「한·중 문장 조건 연결어미의 대조 연구: '-면, -거든, -다면, -더라도, -어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유현경·성미향·박효정·주향아·이찬영·이현지·박혜진, 『말뭉치 기반 한국어 접속어 연구』, 보고서, 2019.
- 이금희, 「확인 의문법 종결어미 '-다면서, -다고, -다지'의 화용적 조건과 의미」, 『어문연구』 4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 이창봉, 「-tamyen as a Marked Conditional Form for the Rhetorical Effect of Distancing in Korean」, 『어학연구』 46-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0.
- 허세문·박유경·임동식, 「한국어의 인식적 (반사실) 조건문과 시제 정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소고」,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언어학회, 2018.

3. 기타 자료

- 국립국어원(<https://www.korean.go.kr>, 검색일: 2020.10.15.~2021.01.31.)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 2009.
-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https://ilis.yonsei.ac.kr/dic/>, 검색일: 2020.10.15.~2021.01.31.)
-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10.15.~2021.01.31.)

〈Abstract〉

Suggestions for Research Method of ‘-eumyeon’ and ‘-damyeon’ in Korean Grammar

Kim, Mun-Gi · Kim, Hyoung-Bok

In this paper, we have taken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to the ‘-eumyeon’ which is known to function as a meaning of ‘supposition condition’ in general, and ‘-damyeon’ which is known to function as a meaning of ‘supposition’.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how the Korean dictionary and some of the previous studies dealt with ‘-eumyeon’ and ‘-damyeon’.

Through this, we classify the meaning function of ‘-eumyeon’ represents the meaning function of ‘condition’, and the meaning function of ‘-damyeon’ represents the meaning of ‘supposition’. And we presented some considerations when judging the semantic function of ‘-eumyeon’ and ‘-damyeon’. We judged that the keys of these were regarded as ‘situation’ and ‘speaker's perception’ related to the preceding and succeeding clauses. Based on these results, we examined the natural uses of ‘-eumyeon’ and ‘-damyeon’. In addition, w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subordinate connective ending ‘-eumyeon’ with the connection adverb ‘geureomyeon’, and the subordinate connective ending ‘-damyeon’ with the connection adverb ‘geureohdamyeon’.

* Key Words: -eumyeon, -damyeon, Condition, Supposition, Situation

· 논문투고일: 2021년 2월 11일 · 심사완료일: 2021년 3월 9일 · 게재결정일: 2021년 3월 10일

